

쓰다가 ‘획’ ... 아무데나 버려지는 마스크

황금연휴 도내 관광지·도심 ‘마스크 쓰레기’ 몸살
일부선 감염 불안 호소... 전문가 “폐기법 지켜야”

“버려진 마스크요? 요즘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 다녀가면 수십 장은 기본이죠. 다른 쓰레기랑 묶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처리하기가 참 난감해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A씨는 어린이날까지 이어진 연휴기간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분주하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늘어난 마스크 쓰레기들이 눈에 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람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길바닥에 그냥 떨어뜨리고 간다”며 “수거하기가 번거로운 것을 떠나 (감염 우려에)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황금연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도심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들이 심심찮게 발견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함덕해수욕장에는 연이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해안가, 도로변, 주차장 할 것 없이 버려진 마스크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특히 주차장에선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마스크부터 챙겨 끼는 사람들도 보이는 동시에, 차를 세웠던 곳에 마스크를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는 풍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버려진 마스크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다. 주민 김모(32)씨는 “길가에 버려진 마스크를 보면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며 “본인이 착용했던 마스크는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시청 대학로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저녁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차츰 이어지다 금



지난 4일 함덕해수욕장 주차장 한쪽에 마스크 여러 장이 버려져 있다. 강다혜기자

새 골목이 가득했다. 버스정류장, 화단, 가게 앞, 건물 계단 등 온갖 곳에 쓰레기와 마스크가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이도2동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한모(75)씨는 마스크와 각종 쓰레기가 한데 섞이는 통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마스크를 쓰레기통에라도 버려줘야 하는데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을 보면 힘이 빠지곤 한다”며 “특히 남은 음식물과 음료가 담긴 쓰레기와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분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바깥 면은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 면과 손이 닿지 않게 접어서 버려야 한다. 또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마스크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배종면 제주감염병지원단장은 “마스크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앞면(바깥 면)이기 때문에 앞면에 손대지 않도록 버리는 것이 올바른 폐기법”이라며 “앞면이 뒤집어지도록 말아서 접고, 마스크 귀걸이를 이용해 묶은 후 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공공정책 갈등 사전 예방 도, 갈등영향분석 명문화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이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차원에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이 주요 골자다.

특히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어떤 장난감을 고를까? 어린이날인 5일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한 장난감 가게가 부모 손잡고 찾은 아이들로 붐비고 있다. 이상국기자

아이들 뛰놀 놀이터 함께 만든다

고은실 의원 관련 조례 발의

제주에서 어린이 의견이 투영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례는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학교 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어린이 놀이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학교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과 실태조사 실시·공개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오는 13일 고3부터 ‘등교 개학’ ... 중간·기말고사 예정대로 치를 듯

교육청 학사 일정 대책 수립

코로나19로 연기된 등교 개학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지필평가를 예년처럼 2번 실시하는 등 미뤄졌던 학사 일정을 최대한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고3 ▷20일 고2·중2·초1~2·유치원 ▷27일 고1·중2·초3~4 ▷6월 1일 중1·초5~6 등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3의 경우는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이 고려돼 가장 빨리 등교 개학이 이뤄졌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도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도움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가정의 돌봄 부담 등의 사유로 개학 시기가 다른 학년보다 앞섰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사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상이하고 지역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학급 내 학생 밀집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체적인 운영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한 학기에 2회 실시하는 ‘지필평가’를 그대로 실시하는 등 학사 일정을 최대한 소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적고, 지역내 감염도 없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감염 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토론식 수업’은 사실상 금지하고 ‘강의식 수업’을 위주로 진행하며, ▷특정 과목을 진행하기 위해 교실을 옮겨 수업을 하는 ‘분반 수업’ ▷기숙사 ▷급식 ▷밀집도가 높은 학교(동지역) ▷방역 등은 등교 개학이 이뤄지기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4일 “읍면지역 학교는 등교 개학을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은 어려운 여건이다”라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전국 첫 ‘원격수업 지원 조례’ 발의

비대면 수업 질 확보 위한
교육감 지원 책무 등 명시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비대면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강충룡·부공남·강성균 의원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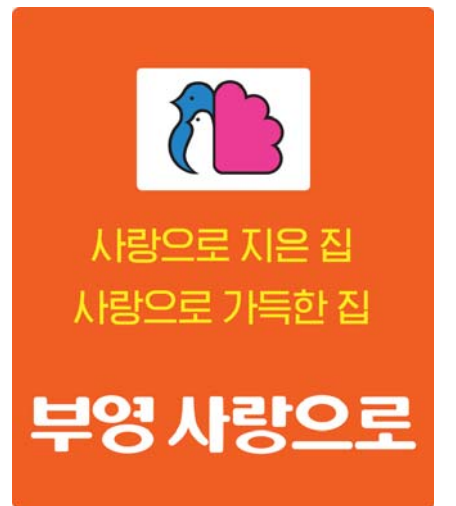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의 질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수업의 효율성이 담보된 비대면 원격수업 정착을 위해 발의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연구 및 연수 ▷출결 및 평가 ▷기반조성 ▷공정성과 형평성 ▷연구·시범학교 운영 ▷의견수렴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현재 원격수업은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방법, 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 학교간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Gallery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